

안철수 “국정원 직원 죽음, 또 다른 의혹”

野 “철저한 진상 규명” 與 “사실 확인 우선”

국정원 “한국 IP 138개는 국정원과 무관”

국내 해킹 논란과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정정화를 경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킴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으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정말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당국은 한점 의혹 없이 국민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명 의원은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고 경위자 자살한 사건,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을 언급하고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 자살이 잇따르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이 세 번째 정치적 자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자료 분석 결과 발견한 로그파일에서 한국 인터넷 IP 주소 138개를 확인했다며 광범위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할당된 IP가 138개이고, 중복 건수를 포함하면 300건이다. 할당 기관은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이고, 다음카카오 같은 일반기업도 있다”며 “이 파일 내용을 갖고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정원이 주장하는 대로 연구개발과 대북용이라거나 (대상) 고작 20명이라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

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현장조사 이전에 국회 정보위원회 등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해명하자고 요구하는 한편,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의뢰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권은 국정원과 관련된 이슈만 불거지면 무조건 의혹부터 제기하고 압박하기 일췌인데 차분하게 기다리면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

면서 “정치권은 진중함과 인내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최근 정치권이 국정원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해킹프로그램은 대부분 대북감시용이거나 연구용으로 들어온 것”이라면서 “모두 합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드러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날 정보위 소속 같은 당 박진식 의원과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숨진 국정원 직원 임포씨에 대해 “정치 문제화가 되면서 더욱 압박을 느낀 것 같다”며 “정열을 바쳐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 정치에 휘말려서, 압박을 받아서 세상을 달리하는 일이 다신 없도록 (하고) 정말 마음 놓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임씨가 삭제한 내용의 100% 복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한국인터넷 IP주소 138개를 확인했다. 주장에 대해 “국정원과 무관하며, 해킹팀사(社)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 대표직 잘 수행하고 있다”

김무성 41%·문재인 18%

갤럽조사, 당지도도 새누리 41%·새정치 22%

한국갤럽이 여야 대표 역할 수행 평가를 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1%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37%)보다 4%포인트 높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표에 대해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묻는 결과, 응답자의 6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응답자의 지지정당별 긍정·부정 평가율은 새누리당 지지층은 16%가 긍정적 평가를 했고, 72%가 부정적 평가를 했다. 새정치연합 지지층도 27%만이 문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3%였다.

한편, 이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3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8%

로 전주대비 1%포인트 하락하는 등 4주째 내보 상태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새누리당이 지난 주와 변함없는 41%를 계속 유지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의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2%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주차 양당 지지율 격차는 15%p였으나 2주일 만에 19%p로 벌어진 것이다.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처음 포함한 가운데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16%를 얻어 1위로 조사됐다. 이어 김무성 대표(15%), 문재인 대표(12%),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8%), 오세훈 전 서울시장(6%),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4%), 유승민 전 원내대표(4%), 정몽준 전 의원(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8%(총 통화 5723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킴이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해킹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명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안 위원장, 문병호 의원. /*연합뉴스

박준영 “野 총선·대선 필패...총선前 신당 만들어야”

“천정배 의원과도 신당 논의...내용 공개는 않겠다”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총선·대선 필패’를 예상했다. 이어 그는 신당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전 지사는 내년 총선 전 신당 창당에 나서기를 기정사실로 하고, 일정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지사는 이날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이 개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새정치연합으로는 내년 총선 때 수도권에서 거의 완패해 총 30~40석, 50~60석밖에 확보하지 못

할 것이라는 여론을 듣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후 신당을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며 총선 전 신당 창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패하고 난 뒤 신당을 창당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지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이례적인 안 된다는 걱정과 우려에서 신당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리라 자신한다”며 “(신당에서)비중이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잘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때 신당이 출현하면 수도권

에서 야권이 분열해 새누리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신당의 명분에 따라 여론이 결정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지사는 신당이 호남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의원들의 합류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신당에 현역 국회의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신당에는 신진세력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는 “천정배 의원과도 신당을 논의하고 있지만 주고받은 얘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정의당 새 대표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사진) 대표 체제가 19일 진보연영의 재편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공식 출범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에서 취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진보 재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심 대표는 전날 노회찬 전 대표와의 결선 투표에서 365표(52.5%)를 득표, 3308표(47.5%)를 얻은 노 전 대표를 꺾고 신임 대표에 당선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신의 광장/집안의 광장! U-square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투데이 경매

KT&G 본건
농성공원역 주유소부지, 큰대로변 차량통행많은, 커피전문점, 식당 차림관련사업체추천
지하 1층~지상 4층
대지 814㎡ 건물 903㎡
감정가 15억 8천
최저가 11억

주월동 아파트단지내 최고상권 편의점, 카페, 학원등 입점추천
지하1층~지상4층
대지 236㎡ 건물 594.8㎡
감정가 4억 5천 3백
최저가 4억 5천 3백

화순을 한전 맞은편 주유소부지
교차로 근접
2층상가, 자동세차기 포함 상가, 병원부지 및 손세차장 적합
토지 1249㎡ 건물 600㎡
감정가 10억 7천 5백
최저가 7억 5천 3백

서구 쌍촌동 운천역 5분거리
에 위치한 제2중일반주거지역 원룸부지, 창고용지적합
대지 902㎡
감정가 4억 4천
최저가 4억 4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전산직(정규직)직원 채용

글로벌 세상을 선도하는 동강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직원을 채용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자격조건	비고
기술	전산직 0명	- 전문학사학위 이상인자 - 프로그래밍(CS/웹) 개발 및 유지보수 1년 이상 경력자 - 개발 툴 파워빌더 사용 가능자 - JAVA, PHP 개발 가능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DB 관련 자격증 취득자 우대

접수기간 2015. 7. 22(수) ~ 07. 23(목) 15:00까지

접수처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062)520-2211~2

세부사항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ac.kr) 직원채용공고 참조

동강대학교
(500-7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